



우리은행, 진로체험·꿈찾기 지원 기부금

우리은행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체험·꿈찾기'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억2300만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원덕 우리은행장(왼쪽)과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농협은행, 우리쌀 200포 다문화가정에 기부

NH농협은행은 경기 하남 소재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를 찾아 농촌지역 다문화어린이들을 위해 쌀 200포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현애 NH농협은행 개인금융부문장(왼쪽)이 옥경일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에게 농산물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LGU+, 포항 태풍 대피소에 무료충전소 제공

LG유플러스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다목적복지관 대피소에 휴대폰 무료충전 및 와이파이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고 6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대한적십자사와 재난대응과 사회안전망 구축 활동을 협력하기 위한 ESG 전략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LG유플러스



SK에코플랜트, GIG과 해상풍력 공동개발 협약

SK에코플랜트는 지난 5일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의 해상풍력 개발회사인 코리오 제너레이션(Corio Generation)과 종합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와 함께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왼쪽부터) 최우진 코리오 제너레이션 한국 대표, 신정원 토탈에너지스 한국총괄대표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 이왕재 SK에코플랜트 에코에너지BU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SK에코플랜트



소진공, 대전중앙시장서 사회공헌 활동 펼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과 함께 대전중앙시장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환경보호를 위한 아이스팩 기부 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소진공 김경숙 상임이사(왼쪽 4번째)가 대전상인연합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LG 전국 계열사 매장, ‘부산엑스포’ 유치 힘 모은다

베스트샵·대리점·로드샵 등서 현수막·배너·영상 등 활용 홍보

LG그룹이 전사적으로 전국적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에 나섰다.

LG는 전국에 있는 계열사 오프라인 매장에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LG전자 베스트샵 약 400곳과 LG유플러스 대리점 약 200곳이 지난8월부터 부산엑스포 유치 응원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현수막과 배너, 제품 홍보물에도 응원메시지를 포함해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에 적극적으로 부산엑스포



서울 강남대로에 위치한 '일상비일상의틈 by LG유플러스'에서 상영 중인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영상 /LG

를 알리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서울 강남대로에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일상비일상의틈 by LG유플러스'에서 부산엑스포 홍보 활

동을 벌이며 많은 관심을 이끌고 있다.이 공간은 2020년 9월 처음 오픈해 누적 방문객만 79만여명에 달하는 '핫플레이스'로 꼽힌다.

현대차그룹, 스마트 화물터미널 구축 추진… 물류 DX 지원

인천공항공-한진그룹과 손잡고 미래형 모빌리티 물류플랫폼 구축 에어사이드 물류 자동화개발 협업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물류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내 미래형 모빌리티 물류 인프라 구축에 앞장선다.

현대차그룹은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진그룹과 '인천공항 미래형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자동화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립한 '미래형스마트 화물 터미널 인프라 개발을 위한 단계별 추진 계획'의 일환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당 추진



대한항공 우기홍 대표이사(왼쪽부터), 김걸 현대차그룹 기획조정실장 사장,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차

계획에 따라 급변하는 항공물류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인력 중심의 고비용 물류환경에 최첨단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디지털 전환에 나서고 있다,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현대차그

룹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진그룹과 공동으로 인천공항의 활주로 등 항공기 이착륙 지역인 에어사이드에 물류 산업에 최적화된 자동화 기술 개발을 위해 협업한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LG생활거강도 9월 전국 마트 판매 매장뿐 아니라 10월에는 백화점, 면세점, 가맹로드샵 등 1250개 매장으로 전시물을 활용한 유치 지원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제품 포장에도 응원문구를 넣고 온라인 쇼핑물에서는 특별 기획전도 운영한다.

한편 LG는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국내 주요 거점 12개 전광판과 옥외 광고물에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3개사는 2025년경 인천공항에 4차 산업 신기술을 적용한 세계 최초의 스마트 화물터미널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현대차그룹은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통해 축적한 ▲자동화 기술 ▲무인 자율주행 ▲웨어러블 로봇 등 모빌리티 기술의 인천공항 내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나아가 항공과 화물 영역 전반에서 해당 기술의 적용 가능 여부를 시험하는 무대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기존 자동차 제조 영역을 넘어 고객의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제주항공 “헌옷 기부로 생활 속 탄소배출 절감 실천해요”

임직원 107명 참여 1146점 기부 약 223kgCO2e 탄소저감 실천 소나무 26그루 1년 흡수 탄소량

제주항공이 ESG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의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배출 절감 실천을 돕기 위해 사내 헌 옷을 모아 (재)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6일 제주항공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날까지 제주항공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헌 옷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며 “이 기간동안 모은 헌 옷들을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기간 동안 약 108명의 임직원이 기부행사에 참여했으며의류는 1132점, 잡화 14점으로 총 1146



6일 오전 제주항공 객실승무원 라운지에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임직원들과 함께 헌 옷 수거함에 헌 옷을 기부하고 있다. /제주항공

점을 모았다.

이번 기부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탄소저감량은 약 223kgCO2e(탄소발자국 총량)이며 이는 30년된 소나무 26그루가 1년 내내 흡수하는 탄

소량에 해당한다.

제주항공은 이번 헌 옷 기부 행사를 시작으로 임직원들의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배출 절감 실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외부 기관과 협력을 통

한 기부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기내에서도 고객 대상으로 텀블러, 에코백, 모바일 탑승권 사용 등 탄소저감을 위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조종사들의 탄소배출 줄이기 캠페인 등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뿐만 아니라 항공기 브레이크 교체, 엔진 세척 등 비행효율을 개선하는 구조적 개선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고객대상 수하물 무게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고객참여도 이끌어내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인사

◆메트로경제 △경기남부인천 취재본부 본부장 김대의

◆아시아투데이 △사장 황석순 △광고·독자마케팅 총괄(상무이사) 권태

훈 △편집국 편집국장 겸 금융부장(부국장) 이승제 △편집국 산업부장(부국장) 강주남 △편집국 증권부장(부국장) 설진훈 △편집국 사회부장직무대리(차장) 이승욱

◆동의대학교 △도시환경디자인연구

소장 문두열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종오 △디지털트윈연구소장 이상민

◆한국장학재단 ◇승진 △ESG혁신부장장 진태훈 △대학취업창업부 대학취업창업팀장 배승헌 △북권기금장학부

교육바우처TF팀장 정병택 △기획조정부 예산관리팀장 이승헌 ◇팀장급 전보 △국민소통부 홍보팀장 서성진 △북권기금장학부 북권기금장학기획팀장 최동성 △기획조정부 법무/리스크관리팀장(겸직) 김영연